

한-케냐 인프라 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1월 4주~2월 1주)

□ 정책 및 시장 동향

① 케냐 주요 경제 동향

○ 주요 경제 지표

출처:trading economics

	해당년/월/주/일	전년/월/주/일	참고시점
환율(USD)	129	129	2026.01월
인플레이션(%)	4.5	4.5	2025.12월
CPI(points)	148	147	2025.12월
정부부채비율(% of GDP)	65.5	72	2024.12월

○ 콩고민주공화국(DR Congo)의 철광석 메가 프로젝트 및 역내 경제적 파급효과)

- 콩고민주공화국(DR Congo) 정부는 대규모 철광석 개발 프로젝트 (Mines de Fer de la Grande Orientale, MIFOR) 추진 계획을 발표했으며, 해당 사업은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자국의 광업 부문을 대폭 확대할 잠재력을 지닌 사업으로 평가됨.
- MIFOR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는 철광석 매장 지역과 대서양 연안 심해 항만인 바나나(Banana) 항을 연결하는 중량 철도 및 하천 운송망 구축이 추진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의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동 사업은 연간 수백만 톤 규모의 철광석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확장을 통해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는 콩고의 기존 구리·코발트 중심 광물 산업 구조를 넘어서는 전략적 전환을 시사함.
- 정부 관계자들은 본 철광석 개발 사업이 국가 경제에 대규모 자본 유입을 촉진하고, 기관투자자 유치 및 산업 다각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경제적 기회로 인식하고 있음.

1) <https://www.theeastafrican.co.ke/tea/business-tech/dr-congo-banks-on-iron-project-to-inject-679bn-in-economy-5328738>

- 무디스(Moody's), 유동성 개선 및 채무불이행 위험 완화 반영하여 케냐 국가신용등급을 B3로 상향²⁾
 -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케냐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Caa1에서 B3로 상향 조정하고, 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으로 변경했으며, 이는 단기적인 채무불이행 위험이 감소하고 대외 유동성이 강화된 점을 반영한 조치임.
 - 이번 등급 상향은 외환보유액 증가, 시장 접근성 개선, 경상수지 적자 축소, 그리고 유로본드 발행을 통한 효과적인 부채 관리로 차환 부담이 완화된 점을 반영함.
 - 또한 차입 비용 하락과 국채에 대한 견조한 수요 등 국내 자금조달 여건 개선 역시 재정 자금 조달 역량을 강화한 요인으로 평가됨.
 - 다만 무디스는 높은 부채 수준, 취약한 부채 상환 여력, 더딘 재정 건전화 속도가 케냐의 신용도에 여전히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함.

- 마스터카드, 2026년 케냐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내수 확대 및 디지털 혁신 전망³⁾
 - 마스터카드 경제연구소(Mastercard Economics Institute, MEI)에 따르면, 케냐 경제는 견조한 내수 수요, 디지털 전환 가속화, 교역 관계 다변화를 기반으로 2026년에도 회복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미 달러화 약세와 에너지 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은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는 케냐 중앙은행(Central Bank of Kenya)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중소기업(SME)의 혁신 활동과 디지털 경제의 확대는 성장세를 추가적으로 뒷받침하며, 이를 통해 케냐는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신규 수출 경로를 개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 이러한 전망은 세계은행(World Bank)이 제시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4.9% 전망과 궤를 같이하나, 글로벌 무역 갈등, 원자재 가격

2) <https://businesstoday.co.ke/moodys-upgrades-kenya-to-b3-on-lower-default-risk/>

3) <https://www.capitalfm.co.ke/business/2026/01/mastercard-strong-domestic-demand-to-drive-kenyas-economy-in-2026/>

변동성, 높은 공공부채 수준 등은 여전히 위협 요인으로 남아 있음.

○ 케냐 재무부, 단기 채무 관리로 중앙은행(CBK) 당좌대월 감소⁴⁾

- 케냐 재무부(National Treasury)는 단기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도래하는 대규모 국내 부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케냐 중앙은행(Central Bank of Kenya, CBK)으로부터의 당좌대월(초과인출) 규모를 기존 KES 673억 6천만에서 약 KES 69억4천만으로 대폭 축소함.
- 해당 당좌대월 제도는 세수 유입이 예정된 지출에 미치지 못할 경우, 특히 만기 도래한 국채의 이자 및 원금 상환을 이행하기 위한 일시적 현금흐름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활용되는 긴급 차입 수단임.
- 다만 재무부는 익월 말까지 KES 3,786억 규모의 국내 부채 상환 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어, 공공재정에 대한 압박이 지속되고 있음.
- 경제학자들은 중앙은행 당좌대월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통화정책의 효과를 저해하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잔액을 보다 신중하게 관리하고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② PPP 관련 동향

○ 가뭄 장기화로 케냐, 민관협력(PPP) 기반 전력 다각화 가속화⁵⁾

- 장기간의 건조한 기후로 인해 세븐 포크스(Seven Forks) 댐의 수위가 하락하면서 케냐의 수력발전 시스템이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는 전력 생산과 경제 안정성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케냐 전력공사(KenGen)는 전력 공급이 현재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번 상황은 수력발전의 기후 변화 취약성과 그에 따른 정치적·경제적 영향을 부각시키고 있음.
-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전력 다각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특히 700MW 규모의 하이 그랜드 폴스(High Grand Falls) 수력발전댐과 40.5MW

4) <https://www.businessdailyafrica.com/bd/economy/treasury-s-cbk-overdraft-drops-amid-debt-pressure-5340340>

5) <https://www.dawan.africa/news/water-stress-power-politics-and-the-race-to-future-proof-kenyas-grid>

태양광 발전소 등 주요 사업을 민관협력(PPP)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사업들은 기후 리스크에 대비한 전력망 안정화와 함께 산업 및 경제 성장 지속을 위한 전략적 전환을 시사함.

○ **Financial Afrik Awards, 아프리카 개발 및 부채 관리 전략 수단으로서 PPP 강조**⁶⁾

- 반줄(Banjul)에서 열린 제7회 Financial Afrik Awards에서는 민관협력(PPP)이 아프리카 개발의 핵심 수단이자 과도한 공공부채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인정하였음.
- 연사들은 PPP가 합리적 국가 재정과 민간 부문의 전문성을 결합할 수 있는 수단이며,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규제적 기반과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 가봉(Gabon)과 감비아(The Gambia)의 사례 연구를 통해 산업단지, 항만, 디지털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에서 PPP의 긍정적 영향이 확인됨.
- 패널리스트들은 또한 아프리카가 직면한 막대한 미래 인프라 및 주택 금융 격차를 강조하며, PPP가 지속가능한 개발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 수단임을 재확인하였음.

○ **Galana-Kulalu PPP 재개, 케냐 식량 안보 강화 및 식량 수입 40% 감소 전망**⁷⁾

- 정부는 민관협력(PPP) 모델로 Galana-Kulalu 관개사업(Galana-Kulalu Irrigation Scheme)을 재가동하여 식량 안보와 국가 안정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본 사업은 비료 관수(fertigation) 및 중심 피벗 관개(center-pivot irrigation) 등 현대적 농업 기술을 적용하며, 현재 9개의 피벗이 가동 중이고 향후 23개 피벗으로 확대하여 초기 3,000에이커(acres)를 경작할 계획임.
- 경작 대상은 주요 식량작물과 상업작물 중심이며, 경작 면적은 2026년 6월까지 6,400에이커에 도달하고, 1단계 완료 시 20,000에이커 규모로 확대될 예정임.
- 이 사업을 통해 케냐의 식량 수입 의존도를 최대 40%까지 줄일 수

6) <https://www.financialafrik.com/en/2026/01/25/the-financial-afrik-awards-recognize-ppps-as-development-instruments-in-africa/>

7) <https://www.the-star.co.ke/news/2026-01-28-galana-kulalu-revival-a-well-fed-nation-is-a-secure-nation-says-ps-omollo>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 Galana-Kulalu 교량은 물류와 시장 접근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됨.

- **법원 소송으로 나이로비 외곽순환도로(BRT 5호선) 사업 조달 절차 검토⁸⁾**
 - 나이로비 외곽순환도로 BRT 5호선 사업의 KES 76억 규모 입찰이 법원에 제기되었으며, 입찰 참여자와 관련된 분쟁이 현재 고등법원 (High Court)에서 심리 중임.
 - 본 사업은 10.5km 규모 BRT 전용 차로 및 13개 정류장을 포함하는 사업으로, 대한민국 수출입은행(Export-Import Bank of Korea)의 EDCF(경제개발협력기금) 프로그램을 통해 재원 조달이 이루어지고 있음.
 - 청원인 측은 조달 과정의 결함 및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주장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으며, 케냐 도로청(KURA)과 공공조달청 (PPARB)은 관련 법규를 준수했음을 유지하고 있음.
 - 확인된 사실은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며, 2026년 1월 27일 추가 심리 일정이 예정되어 있으나, 프로젝트의 법적 전면 중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③ 인프라 정책 및 동향

- **H Young, KES 34억 Thika - Magumu 도로 개선사업으로 주요 도로 인프라 사업 복귀⁹⁾**
 - H Young & Company (East Africa) Ltd가 케냐 국도청(Kenya National Highways Authority, KeNHA)으로부터 KES 34억 규모의 Thika - Magumu 도로 개보수 공사 계약을 수주했으며, 이는 동사가 주요 도로 프로젝트에서 일정 기간 물러난 후 복귀하는 사례임.
 - 본 3년 프로젝트는 2026년 1월 착공 예정이며, Kiambu와 Nyandarua 카운티를 연결하는 주요 교통 축을 개선하여, 나이로비 지역과 중앙 케냐 간 연결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 도로 개선 작업은 도로 포장 재포장 및 필요 시 확장을 포함하며, 안

8) <https://streamlinefeed.co.ke/news/sh7-6-billion-brt-tender-halted-as-korean-firm-sues-kura>

9) <https://www.businessdailyafrica.com/bd/corporate/industry/construction/h-young-returns-to-big-road-works-with-sh3-4bn-project-5328706>

전성 향상, 이동 시간 단축, 경로를 따라 경제활동 지원을 목표로 함.

- 이번 계약은 전국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주요 도로 사업을 재개하고 도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려는 정부 및 도로 기관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됨.

○ **법원, Riruta - Lenana - Ngong 철도 사업 법적·재원 준수 문제로 일시 중단¹⁰⁾**

- 케냐 고등법원(High Court of Kenya)은 KES 110억 규모의 Riruta - Lenana - Ngong metre-gauge 철도 사업에 대해 가처분 명령을 발령하여, 법적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공사 및 관련 지출을 일시 중단함.
- 이번 판결은 부시아(Busia) 상원의원 Okiya Omtatah와 활동가 2인이 제기한 헌법 소송에 따른 것으로, 청원인들은 해당 사업의 재원 조달과 조달 과정이 불법적이며, 의회의 승인과 공공 참여 절차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또한 철도개발부담금(Railway Development Levy Fund) 및 통합기금(Consolidated Fund)에서 사업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헌법 및 공공재정 관련 요건 준수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제한하도록 명령함.
- 해당 철도 사업은 원래 나이로비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통근 철도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계획되었으나, 현재 고등법원이 합법성, 투명성, 책임성 문제를 검토하는 동안 사업은 중단된 상태임.

○ **정부, 서부 케냐 금광 개발(KES 6,830억) 추진 및 지역사회 관계 안정화 조치 시행¹¹⁾**

- 중앙정부와 카운티 정부는 Shanta Gold Limited가 추진하는 KES 6,830억 규모 금광 사업과 관련하여, 이전에 발생한 치명적 시위로 촉발된 Ikolomani 지역사회 내 긴장과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개입함.
- 당국은 11명 위원회를 구성하여 광산업체, 투자자, 토지 소유자, 지역 지도자 등과 여러 지역구를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하며, 채굴 활

10) <https://www.standardmedia.co.ke/national/article/2001538989/high-court-halts-sh11b-riruta-lenana-ngong-railway-project>

11) https://www.standardmedia.co.ke/western/article/2001539605/state-moves-to-quiet-uncertainty-over-sh683-billion-gold-project#google_vignette

동을 안정화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함.

- 본 이니셔티브는 서부 케냐 금 매장지의 경제적 잠재력을 활용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우려를 해소하고 갈등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광업부 차관 Harry Kimtai과 카카메가 주지사 Fernandes Barasa가 참여해 합의 도출 및 질서 있는 사업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 노력을 주도함.

○ 법원 케냐 몸바사(KES 18.6억) 송전선 입찰 일시 중단 - 기관 권한 분쟁¹²⁾

- 케냐 몸바사 Kipevu - Mbaraki 132kV 송전선 건설을 위한 KES 18.6억 규모 입찰이, 케냐 전력회사(Kenya Power)의 사업 권한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인해 고등법원(High Court)에 의해 일시 중단됨.
- 법원은 가처분 명령을 발령하여,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케냐파워가 조달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으며, 다음 심리 일정은 2026년 2월 17일로 예정됨.
- 분쟁의 핵심은 해당 송전선이 고압 전력으로서 법적 권한이 케냐 전력회사가 아닌 케냐 전력송전회사(Ketraco)에 속하는지 여부임.
- 비정부기구(NGO)인 Centre for Litigation Trust는 케냐파워가 고압 송전망에 대한 관할권이 없으므로 본 입찰은 불법적이라고 주장하며, 에너지 부문 전반의 거버넌스 및 준수 문제를 제기함.

④ 정치 동향

○ 케냐 - 프랑스,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역사적 아프리카 - 프랑스 정상회의를 앞두고 의회 협력 강화¹³⁾

- 케냐 국회의장 Moses Wetang'ula는 프랑스 대사 Arnaud Suquet와 만나, 의회 친선협의회(Parliamentary Friendship Group)를 통한 의회 협력 강화를 중심으로 케냐 - 프랑스 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함.
- 회담에서는 2026년 5월 나이로비에서 개최 예정인 아프리카 - 프랑스 정상회의(Africa - France Summit) 준비 상황도 검토되었으며, 이번 정상회의는 비(非)프랑코포니 국가에서 열리는 첫 회의임.

12) <https://www.businessdailyafrica.com/bd/corporate/industry/sh1-86bn-tender-for-mombasa-power-line-suspended-5342748>

13) <https://www.the-star.co.ke/news/2026-01-20-wetangula-meets-french-envoy-eyes-deeper-parliamentary-ties>

- 정상회의 의제는 혁신, 인프라, 기후 대응, 보건에 중점을 두며, 이는 케냐의 국가 개발 우선순위와 부합함.
 - 회의 개막에는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되어, 아프리카 및 프랑스 민간 부문의 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성장 파트너십 형성을 목표로 함.
- 미국 -아프리카연합, 무역 및 민간투자 촉진 위한 전략적 인프라·투자 그룹 출범¹⁴⁾
- 미국과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AU)은 전략적 인프라 및 투자 실무그룹(Strategic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 Working Group, SIWG)을 설립하기로 합의하여, 아프리카 전역에서 경제협력 강화 및 민간부문 투자 확대를 추진함.
 - SIWG는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AU 집행위원장이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에서 출범했으며, 미국 기업이 AU 지원 인프라, 무역 촉진 프로젝트 및 관련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식별하고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임.
 - 본 그룹의 활동은 Agenda 2063, 아프리카 인프라 개발 프로그램(PIDA),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 등 AU 우선 과제와 연계되어, 교통 회랑, 에너지 네트워크, 디지털 전환 지원을 목표로 함.
 - 이번 이니셔티브는 미국과 아프리카 간 무역·투자 중심 협력으로의 전환을 반영하며, 일자리 창출, 경제적 안정성, 상호 번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함.

14) <https://www.theeastafrican.co.ke/tea/news/world/us-doubles-down-on-trade-with-africa-sets-up-team-with-au-5342002>

□ 일반 프로젝트 동향 및 센터 운영 현황 보고

① 일반 프로젝트 동향

① Lot 3: Chemelili-Kipsitet Road¹⁵⁾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케냐 정부 케냐국도청(KeNHA), 도로교통부(Ministry of Roads and Transport)
- (도 급 사) H. Young & Co. (E.A.) Ltd (Lot 3: Chemelil-Muhoroni-Kipsitet 담당)
- (사 업 비) 약 KES 57억
- (편 징) 케냐 국고(National Treasury) 예산을 통한 케냐국도청(KeNHA) 배정
- (사업내용)

- Chemelil-Kipsitet 구간(Lot 3)은 총 122km Mamboleo Junction-Miwani-Chemelil-Muhoroni-Kipsitet 고속도로의 일부로, Kisumu 카운티와 Nandi, Kericho, Nyamira 카운티 일부를 연결하는 주요 국가 간선도로임.
- Lot 3 구간 공사는 약 44.7km 도로를 아스팔트 포장으로 재건하며, 차로 확장, 도로 갓길, 포장 구조 보강, 중량 화물차 통행에 적합한 배수시설 개선을 포함함.
- 본 사업은 3개 구간(Lot) 전략의 일환으로, 주행 시간 단축, 지역 연결성 강화, 서부 케냐 농업 및 무역 잠재력 활용을 목표로 함.
- Lot 3 공사는 Lot 1(Mamboleo Junction-Miwani) 및 Lot 2(Miwani-Chemelil)과 연계하여, 전체 도로 구간이 체계적으로 개선되도록 조정됨.

▪ (추진현황)

- 2022년 10월: 전체 고속도로 구간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3개 구간(Lot) 모두 각각 다른 시공사에 계약되었고, Lot 3 구간은 H. Young가 담당함.
- 2024년~2025년 초: 자원 부족으로 인해 구간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시공사들은 지급 지연으로 활동을 일시 중단하였음.
- 2025년 4월: 정부는 진행을 방해했던 자원 병목 문제를 해결하고 프로젝트 자금을 확보하여, Lot 3을 포함한 모든 시공사가 공사 재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2025~2026년: 고속도로 구간 공사가 재개되었으며, H. Young 및 기타 시공사가 현장에 복귀하였고, 정부 지급이 지속됨에 따라 공사 진척 속도 가속이 예상됨.

○ (주요상황)

- 정부는 장기간 지연된 지급 문제를 해결하여, Lot 3을 포함한 중단된 도로 공사 재개를 가능하게 하였음.
- Lot 3 구간은 Kisumu 및 Kericho 카운티의 산업 및 농업 지역을 연결하는 핵심 구간으로, 완공 시 이동 시간 단축 및 운송 비용 절감에

15) <https://constructionreviewonline.com/kenha-resumes-construction-on-the-122-kilometer-mamboleo-junction-miwani-chemelil-muhoroni-kipsitet-highway/>

크게 기여할 예정.

- Chemelil - Kipsitet 구간 공사는 총 122km 고속도로의 핵심 부분으로, 완공 시 Kisumu와 Nandi, Kericho, Nyamira를 연결하게 됨.
- Lot 3을 포함한 전체 도로 구간은 무역 활성화, 운송 효율성 향상, 서부 케냐 지역 경제 통합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②Lot 2: Dualling and Upgrading Mtwapa-Kwa Kadzengo-Kilifi (A7) Road¹⁶⁾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케냐 정부 – 케냐국도청(KeNHA), 도로교통부(Ministry of Roads and Transport)
- (도 급 사) Jiangxi Transportation Engineering Group과 Victoria Engineering Company 합작(Joint Venture), Lot 1 및 연계 구간 공사 수행, 동일 계약 체계 내에서 Lot 2 감독 가능성 포함
- (사 업 비) 전체 Mombasa–Mtwapa–Kilifi/A7 도로 구간 약 KES 417억 투자 중 일부, Lot 2는 해당 투자 범위에 포함
- (편 당) 케냐 정부 자원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및 유럽연합(EU) 지원
- (사업내용)
 - 연장 및 노선: Lot 2는 Mtwapa–Kwa Kadzengo–Kilifi 구간을 포함하며, 약 40.4km에 해당. 북부 해안 주요 간선도로(A7 Highway)의 핵심 구간.
 - 사업 범위: 기존 도로를 필요 구간에서 4차선 도로로 확장하고, 포장, 배수시설, 교차로(인터체인지 포함), 육교 및 비자동차 교통 시설을 개선하며, 주요 배수 및 부대시설 설치로 홍수 피해 완화
 - 설계 특징: 조달 및 설계 문서에 따르면, 7.3km 구간 4차선 도로 및 서비스 차로, 주요 3경간 220m 4차선 교량, 배수 및 도로변 편의시설 개선이 포함됨.
 - 지역적 중요성: A7 도로는 동아프리카 해안 간선의 일부로, Mombasa와 북부 케냐 도시 간 연결성 향상, 무역 활성화, 해안 관광 성장 지원을 목표로 함.
- (추진현황)
 - 2025년 말: 케냐국도청(KeNHA)은 Lot 2(Mtwapa–Kwa Kadzengo–Kilifi) 공정률 약 63%를 보고하였으며, 일부 구간은 보상 및 토지 취득 문제로 지연이 있었으나 공사는 진행 중임.
 - 완공 일정: 시공사와 정부는 Lot 2가 2027년 경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지연으로 인해 원래 목표보다 다소 연장될 예정임.
 - 진행 중인 공사: 도로 기초 정비, 농촌 지역 아스팔트 포장, 배수시설 설치, Mtwapa 및 Kwa Kadzengo 등 도시 인근 구간의 고가 및 복합 구조물 공사가 포함됨.
 - 토지 취득: 2025년 11월, 국토위원회(National Land Commission, NLC)는 도로 구간 관련 보상 청구를 위해 토지 취득 공고(추가, 수정, 삭제 포함) 및 보상 청구 관련 청문 일정을 발표하며, 권리 확보 작업이 계속 진행 중임을 알렸음.

○ (주요상황)

- 공동 재원 및 도로 구간: Lot 2는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유럽연합(EU), 케냐 정부가 공동 재원으로 지원하는 4차선 확장 프로그램의 일부로, 전체 A7 도로 구간 업그레이드를 목표로 함.
- 진행률: Lot 2 공사는 약 63% 진행되었으며, 배수시설, 포장, 복합

16) <https://mjengohub.co.ke/articles/infrastructure/mombasakilifi-dualling-project-reaches-70-per-cent-completion-as-mtwapa-bridge-works-accelerate>

구조물 공사가 계속 진행 중.

- 완공 전망: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었으며, 토지 보상 지연 및 설계·시공 복잡성으로 인해 2027년 경 완공이 예상됨.
- 토지 보상: 2025년 국토위원회(NLC) 공고에 따르면, 도로 확장 구간 확정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 절차가 현재도 진행 중임.

③ Mau Summit-Kericho-Kisumu Road Project¹⁷⁾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케냐 정부 – 케냐국도청(KeNHA)
- (도 급 사)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음. 중국도로교량공사(CRBC) + 국가사회보장기금(NSSF), Shandong Hi-Speed 등 컨소시엄과 구간별 협상 진행 중
- (사 업 비) Rironi-Mau Summit 구간 및 Kericho-Kisumu 방향 연장 예상 포함 약 KES 1,700억~2,000억(≈ 15억 USD)
- (편 당) 민관협력(PPP) 금융 모델 적용, 민간 자본(예: CRBC, NSSF)과 차입 포함, 통행료 수익을 투자 회수 수단으로 활용

▪ (사업내용)

- Mau Summit-Kericho-Kisumu 도로는 Northern Corridor 도로망의 Mau Summit에서 서쪽으로 Kericho-Kisumu까지 연장되는 4~6차선 확장 사업으로 구상되었으며, 케냐 서부 도로 연결성 강화를 목표로 함.
- 본 사업은 정부의 역사적 10개년 도로·교통 확장 프로그램에서 Mau Summit-Kericho-Kisumu 구간을 용량 증강 우선 구간으로 지정하였음.
- 기존 단일 차로 도로를 4~6차선 고속도로로 확장하여 교통 흐름 개선과 안전성 강화를 추진함.
- PPP(민관협력) 금융 모델 적용, 민간 파트너가 설계·시공·재원조달·운영·유지보수·양도(DBFOM) 수행, 장기 운영권 기반
- 업그레이드 구간에는 투자 회수 및 지속적 유지보수 지원을 위한 통행료 체계가 적용될 예정임.
- 교차로, 보도 시설, 배수시설, 대기 공간(Lay-bys), 안전 시설 업그레이드 등

▪ (추진현황)

- 2025년: 케냐국도청(KeNHA)과 PPP국은 민간 제안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CRBC+NSSF와 Shandong Hi-Speed가 구간별 계약 수주를 위한 주요 후보로 선정됨.
- 2025년 11월 28일: 루토 대통령이 Rironi-Mau Summit 4~6차선 확장 구간 착공을 공식 발표하였음. 해당 구간은 PPP 방식으로 2027년 중반 완공 예정이며, 사업비 약 KES 8억 6,300만으로 추정
- 정부 계획: Mau Summit 이후 Kericho 및 Kisumu 방향 연장 계획이 통합 도로 확장 비전의 일환으로 제시됨.
- 교통 영향 및 초기 공사: KeNHA는 인접 구간(Njoro-Mau Summit 등)에서 준비 공사 및 임시 도로 통제를 시행하여 기반 시설 개선을 지원함.

○ (주요상황)

- 본 도로 구간 업그레이드는 케냐 고속도로 현대화 전략의 일부로,

17) <https://www.roads.go.ke/he-president-ruto-announces-historic-10-year-roads-and-transport-expansion-programme>

주행 시간 단축, 도로 안전성 향상, 나이로비에서 서부 케냐 및 국경 지역으로의 물류 효율 제고를 목표로 함.

- 민관협력(PPP) 재원 모델을 적용하여, 정부가 직접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 민간 자본을 유치. 통행료가 주요 수익 회수 수단으로 설정됨.
- 본 사업은 Kericho, Kisumu 및 주변 지역의 경제 활동 활성화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시장 접근성 개선과 서부 카운티 간 무역 촉진에 기여함.
- Rironi - Mau Summit 구간은 기초 단계로, 2027년 6월 1일 완공을 목표로 전략적으로 진행되며, Mau Summit 및 서부 확장 전체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의 주요 이정표로 설정됨